

# AI와 통화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26년 4월 3주차 위클리 인사이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 비트코인은 주요 가격대를 다시 시험하고 있으나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 부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규제 이슈, 기관 자금의 흐름,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균형을 찾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는 이번 주 시장을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전조로 해석하고자 한다.

### 이번 주 나의 관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새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나는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단순히 금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연준이 경제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핵심은 하나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금리 싸움이 아니라, "경제를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 현재 흐름에 대한 나의 정의

케빈 워시는 기존의 인플레이션 측정 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특히 AI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까지 반영하여, 금리 정책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경제 지표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구조 변화에 대한 나의 해석

내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연준 정책 프레임워크 자체의 변화다.

나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연준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재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정책 프레임워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 한다.

둘째, AI 혁신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효과다.

내 관점에서는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다. 생산성을 높여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는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중립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이 “양면성”이 앞으로 시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변수라고 본다.

같은 요소가 금리 인하와 인상 두 방향을 동시에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셋째,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의 변화다.

케빈 워시는 기존 근원 CPI 대신 절사 평균값과 중간값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 관점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한 통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정당 화하기 위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측정 방식이 바뀌면 “인플레이션이 낮아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금 리 인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가 — 나의 기준

내 기준에서 지금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준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기존의 경제 지표를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이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데이터보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준”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둘째, AI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내 관점에서는 AI가 단순 기대감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 생산성과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이다. 이 흐름에 따라 시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셋째,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화다.

나는 앞으로 근원 CPI보다 절사 평균이나 중간값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지표가 낮게 유지될 경우, 금리 인하 명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의 나의 판단

내가 보는 현재 시장은 단기와 중장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케빈 워시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초기 국면에서는 완화된 흐름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구간이 위험자산,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AI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기업 이익이 확대될 경우, 결국 중립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 관점에서는 이 흐름이 결국

**“초기 상승 → 과열 → 정책 전환”**

이라는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나의 최종 정리

나는 지금 시장을 단순한 상승 초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시작되기 전의 준비 구간으로 본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 규제 리스크
- 기관 자금 유입
- 거시경제 변화
- AI 혁신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에 들어와 있다.

내 관점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가\*\*\*다.

연준의 정책 기준,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 그리고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 모든 요소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향후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